

가업승계 2세들 '소통'에서 경영의 답을 찾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3.09.09 03:09 수정 : 2014.11.03 14:52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는 '차세대 가업승계과정'이 중소기업 2세들의 소통과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9기 과정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강사인 김기백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가운데 서 있는 이)로부터 가업승계 계획서 수립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1. "간부이긴 하지만 대기업에 다닐 때와 중소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입장과 고민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많다. 하지만 가업승계 교육과정을 통해 만난 2세들과 다양한 교류, 소통 속에 위안과 용기를 얻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홍진정밀 정태련 부장)

#2. "지금까지 쌓아온 기업 생활과 달리 가업승계에는 개척심이 중요한 것 같다. 주변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롤 모델(role model)을 찾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 배울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한화학공업사 김희선 과장)

정 부장과 김 과장의 공통점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한창 수업을 받고 있는 2세라는 점이다. 또 이들은 공히 대기업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워왔다. 정 부장은 삼성SDS를 거쳐 씨티뱅크 일본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 과장은 미국의 초대형 은행인 웰스파고와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재직 경력이 있다.

정 부장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흥진정밀은 부친인 정기복 대표가 1974년 설립한 시험기기 전문제조업체로 재료시험기, 시멘트시험기, 골재시험기, 콘크리트 시험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권에서 일한 정 부장에겐 제조업이 낯설 수밖에 없다. 그는 "모르는 것이 많지만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아 즐겁다"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 뒤 가업승계를 2~3년 내에 마무리하고 사업구조를 개편, 시장 및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과 회계분야에서 일한 김 과장에게도 필름과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아버지 회사가 생소하기는 마찬가지.

아버지 회사에서 각각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제9기 Kbiz 차세대 CEO 가업승계 심화과정'(차세대 가업승계과정)에 참여해 수업을 들은 뒤 동기들과 매달 한 차례씩 정기모임을 통해 2세들의 고민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제10기 차세대 가업승계과정'이 지난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의 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은 가업승계 전략수립, 조직관리 등 경영역량 제고, 경영자 리더십 함양, 2~3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틀에 짜여진 교육보다는 △갈등관리와 협상관리 △선배와의 대화 △유머스킬 만병통치약 △성공 리더십, 기업가 정신 △해외 장수기업 탐방 등 2세 경영자로서 다양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내용을 짰다.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 2세들의 모임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후암동에 있는 '영락 애니아의 집'을 찾아 장애아동 식사보조 등 봉사활동과 기부금품을 전달했다.

가업승계기업협의회 강상훈 회장은 "부모님들께 회사를 물려받은 2세들이 회사를 잘 경영해 고용창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취소](#)